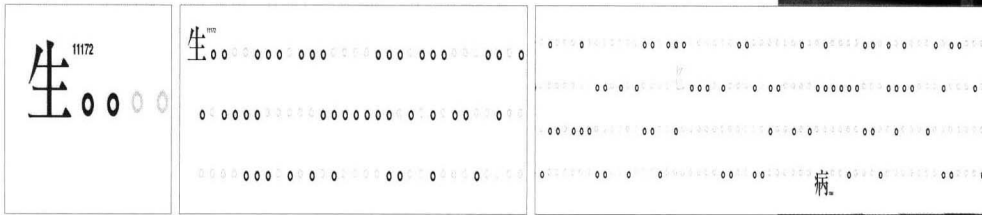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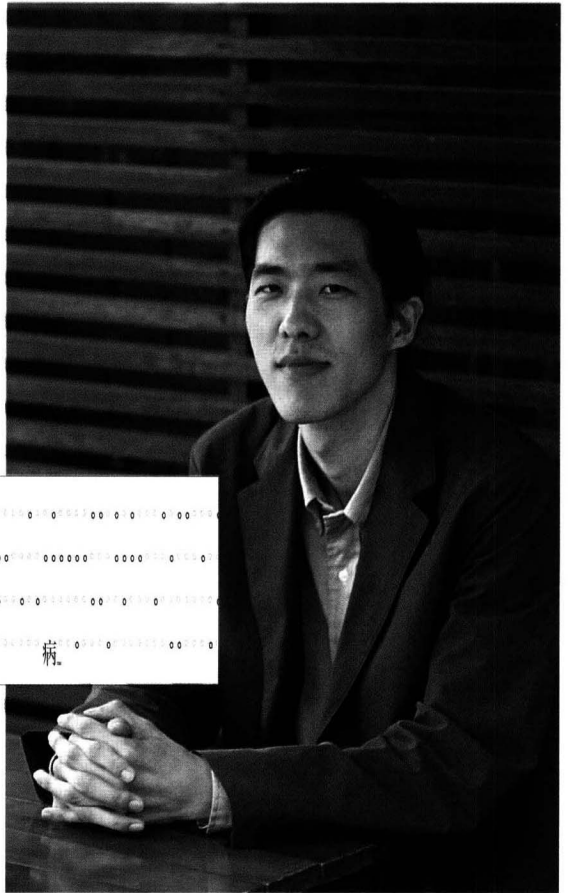


‘한글디자인연구소’에서 ‘활자공간’으로, 문화를 디자인하라



● 한글.을. 소재로 작업한 디자인 작품들. 의미보다는 조형.적.인. 측면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글자는 공기와 같다. 하지만 ‘공기와 같다’는 것은 공기의 입장에 있는 처지로서는 그다지 고마운 말이 아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흔하다는 이유로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한글날을 앞두고 만난 이용제 씨(32)는 국내에 몇 안 되는 한글서체 디자이너다. 여기서 몇 안 된다는 기준은 한글서체를 전공했고 순수하게 한글서체 디자인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는다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글자의 질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은 다른 디자이너 이상이다.

“문자는 어떤 의미에서 문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화의 근간은 문자로 보존되고 전달되며 재창조됩니다. 결국 문자를 디자인하는 것은 문화를 보다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씨가 ‘글자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된 건 대학에 들어와 디자인을 전공하고 나서부터다. 막상 경험한 서체디자인은 그와 비슷한 데가 많았다. 한가지 작업에 오래 집착(?)하고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그의 성격에 서체디자인은 더없이 어울리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그 뒤로 홍익대 동아리 ‘한글꼴 연구회’ 활동을 하며 꾸준한 작업하기 시작한 그는 대학 3학년 때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부설 한글꼴개발원에서 주최한 ‘한글글꼴공모전’에서 타이포그래피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얼마 전까지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운영하던 ‘한글디자인연구소’ 역시 그가 대학교 다닐 때 만든 이름이었다. 자신이 만들고 싶은 회사를 가상으로 만들어 그에 맞는 작업을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이씨는 주저하지 않고 서체디자인 회사를 만들고 이름을 ‘한글디자인연구소’로 정했던 것.

그다지 디자이너답지 않은 이 이름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정통성에 대한 고집이다. ‘한글디자인연구소’라고 뜻을 박음으로써 일체 다른 디자인에 눈을 돌리지 않겠다는 자기구속의 의지를 담았다. 두 번째는 한글을 디자인할 때마다 느끼는 경건한 마음이다.

“서체디자인 특히 본문에 쓰이는 글씨를 디자인할 때는 엄숙한 마음마저 듭니다. 다른 디자인과 달리 글자는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문화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디자인을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유행이나 시대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디자인하고는 틀림없이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1998년 졸업을 앞두고 회사를 설립할 때는 옆에서 지켜본 홍익대 안상수 교수와 서울여대 한재준 교수 등이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 정부에서 웹폰트 개발 프로젝트를 의뢰받은 안 교수가 이 씨에게 이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기고 자신들이 개발한 서체를

판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적으로 국내 그래픽디자이너들에게 안타까운 점은 한글로 디자인을 하면 촌스럽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글 자체가 촌스러운 것은 아니죠. 외국어의 경우 조형적인 측면을 먼저 받아들이는 데 비해 한글은 그 형태보다는 의미를 먼저 받아들입니다.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눈에 한글의 이미지가 조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서체디자인에 있어서 한글이 아직 청년기 글자인 데 비해 영어는 장년기 글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글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한정해서 개발되는 것에 비해 영어는 영국,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나라들에 의해 개발된다. 이를 비율로 따지면 영어가 500배 이상 연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씨는 이러한 열세는 반대로 가능성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젊은 한글’은 ‘늙은 영어’에 비해 개발영역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이씨는 국내와 같이 서체디자인을 하기에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조나단 반브룩jonathan barnbrook이라는 영국 디자이너를 모델로 삼았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세계적 디자인 회사하면 건물도 있고 구성원도 많을 것으로 지레짐작하기 쉬운데 조나단 반브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조나단 주위에는 디자이너 1명, 파트타이머 1명이 있을 뿐이다. 이씨 역시 현재 이러한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물론 한국적인 상황에서 서체디자인을 업으로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영어가 알파벳 52개만 디자인하면 되는 것에 비해 한글은 자음과 모음 이외에 이를 조합해 나올 수 있는 2,350자를 작업해야 합니다. IMF체제 이후 시장이 죽어버린 상황에서 개발해도 팔릴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 서체디자인은 정말 좋아하고 또 소명의식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곧 힘겨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미 있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다보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씨는 현재 ‘한글디자인연구소’를 정리하고, 10월 1일 오픈 예정으로 ‘활자공간’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의 한글디자인연구소가 한글디자인이라는 틀에 한정된 것에 비해 ‘활자공간’은 문자로 할 수 있는 모든 디자인을 시도할 생각이다. 한글의 조형미를 극대화해 안 읽혀도 재미있는 글자를 비롯해 액세서리, 조각, 설치작업까지 표현방법을 달리해 정말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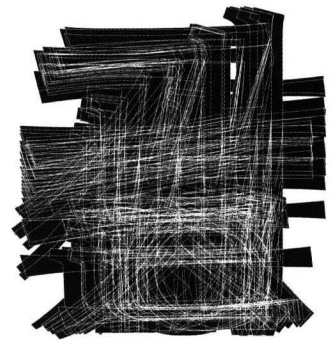
취재 신동섭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g/

to

/b/



가 값 강 값 개
 갈 값 겹 겹 겨
 겪 곤 공 곱 팽
 꺾 꺾 꺾 꺾 꺾

